

화승(畫僧)의 위대한 예술세계는 부처님의 도당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며, 오랜 세월의 흐름 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아 그 생명력을 이어 오고 있다.

장엄한 부처님의 세계를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것을 수행방편으로 삼은 화승들은, 불화 그리는 것을 단순한 화기(畫技)로 생각하지 않고 중생을 이롭게 하고 중생을 구제하는 행위로 여겼다. 대대로 화승(畫僧)의 맥을 이어온 마곡사에서 10월 31일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근세 불교 미술을 대표하는 문성 보응 화승을 기리는 불모비가 세워진 것이다.

보응문성문도회는 99년 5월 보응당 문성대화상 기념사업회를 발족하고, 불모비 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허길량)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보응스님 불모비 건립을 잊혀져가는 화승들의 업적을 기리고, 불화에 담긴 부처님의 가르침과 수많은 화승들의 정신을 다음 세대에 널리 전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졌다.



○10월31일 마곡사 부도전에서 열린 보응스님 불모비 제막식에 모인 불자들은 잊혀져가는 화승들의 업적과 정신을 기렸다. <공주=권형진 기자>

보응스님 불모비 제막

“불교미술 계보연구 노둣돌”

마곡사 경내 부도전에서 문도와 불자 등 1백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된 '보응당 문성 대화상 불모비 제막식'에는 보응당 문성스님의 두 딸 김영희(72), 김태희(75)씨와 일섭스님의 딸 김옥진(73)씨도 참석했다.

20세기 불교 미술에 활목할 만한 업적을 남긴 것으로 평가받는 보응 스님은 조선 중기를 대표하는 화승 외길 스님의 제자 금호 약효 스님의 맥을 이은 마곡사 출신 화승으로, 불화뿐만 아니라 단청과 불상조각 등에도 조예가 깊었던 대불모이다.

보응 스님은 전국 유명 사찰에 화적을 남겼다. 일부 유실되었지만 보은 법주사 후불탱화, 함천 해인사 칠성탱, 진주 호국사 탱화, 밀양 표충사 천수관음도, 예산 수덕사 후불탱화가 현재 남아있고, 고창 선운사 팔상탱화는 스님의 대표작으로 통한다.

이번 마곡사 보응스님 불모비 건립은 비단 마곡사 불모 계보 정리차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한국 불교 미술의 계보를 세우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날 제막식에서 마곡사 주지 진해 스님은 "보응당 문성 대화상은 후학들이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해도 마음의 눈을 볼 수 있도록 불화로 법문을 설하여 놓았다"고 스님의 업적을 기렸다.



○마곡사 대관보전 심세불탱(1909년작). 보응스님과 화제 장연스님이 조성했다.

불모란?

불상 조성하고 부처님 그리는 사람

단청이나 불상 조성, 불화를 그리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전문 사찰의 불사인 경우는 문화재청에서 실시하는 문화재기능인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다. 현재 문화재청에 등록된 문화재기능인은 351명. 불화와 단청을 아울러 화공으로 등록된 사람이 221명이고, 불상 조각을 하는 사람은 130명이다.

단청, 불화, 불상 등 불상을 조성하거나 부처님을 그리는 사람을 높여서 '불모'(佛母)라고 부른다. 불모라는 말 자체가 부처님을 낳은 어머니라는 뜻에서 나온 만큼 아무에게나 이 호칭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에는 물론이고 연봉과 활동력까지 견비했을 때 비로소 '불모'라 한다. 생존해 있는 사람 중엔 인간문화재 제48호 단청장인 만봉스님과 석정 스님을 비롯해 조귀환(탱화) 씨 등 20여명 정도가 불모라는 존칭에 부끄럼이 없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단청, 불화, 불상에 모두 조예가 깊은 사람을 '금어'(金魚)로 받든다. 금호스님을 비롯하여 이번엔 불모비가 세워진 보응 스님과 그 제자 일섭 스님, 우일 스님 등은 이 세 가지에 모두 능해 '금어'라 불린다.

금호-보응-일섭-우일·석정 전통불화 온전히 되살렸다

신라시대 자장율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충남 공주 마곡사는 조계종 제6교구 본사로써 충남 지역의 수사찰이다. 가지산문의 시조인 도의 국사(道義國師)의 법을 이어 종풍을 크게 날렸던 보조 체징국사가 중창한 선종사찰이면서, 또한 절출한 화승들을 배출해 화풍을 크게 날린 도량으로도 유명하다. 그래서 옛부터 마곡사는 남방화소(南方畫所)로 인정받아, 북방화소(北方畫所)인 금강산 유점사, 경산화소(京山畫所)인 수락산 홍국사와 더불어 대대로 절출한 화승을 배출해 왔다.

마곡사는 특히 1750년을 전후해 지리산을 중심으로 전라도와 경상도 일대에서 활약한 화승의 경(義)의 전통을 이어받은 금호 약효스님과 보응, 일섭, 우일·석정으로 이어진 화맥이 닿은 곳이다.

마곡사에 머물며 부처님의 환화 세계를 장엄했던 불모 계보가 최근 정리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마곡사가 배출한 화승 가운데 한 사람인 보응당 문성스님의 불모비가 문도들에 의해 세워지는 과정에서 마곡사 불모 계보가 최초로 정리된 것이다.

조선 후기 이후 마곡사의 화풍을 일으킨 화승은 바로 금호 약효스님이다. 보응스님의 스승인 금호스님은 화승이기 이전에 선지식으로서도 이름을 드날렸던 분이다. 금호스님은 마곡사 주지를 맡아 지내는 동안에도 경기도 병영사, 충북 법주사와 영국사, 충남 감사와 향천사 등의 불화를 제작하며 1930년대까지 활약했다. 금호스님의 문하에는 당대 호서 화승을 중심으로 전국에 화풍을 크게 날린 대불모 보응(普應)스님과

보응스님 다음으로 화풍을 날린 정연(定淵)스님, 만홍(萬興)스님, 성한(盛漢)스님이 있다. 이들 제자 가운데 보응스님의 계보는 보응당 문성대화상 기념사업회의 불모비 제막과정에서 밝혀졌지만, 나머지 세 스님의 계보는 아직 정리되지 않고 있다.

근세 불교미술계에 큰 족적을 남긴 보응 문성스님(1867~1954)은 1877년 계룡산 감사에서 출가해 1881년부터 마곡사에서 화승 금호스님의 문하에서 불화 수업을 받았다. 1890년부터 1950년까지 고창 선운사 팔상탱화, 밀양 표충사 천수관음도를 비롯해 보은 법주사, 함천 해인사 등 전국 유명 사찰에 걸출한 화적을 남겼다. 스님은 경음론 삼장에도 해박해 여러 권의 저서도 저술했다고 전해지나, 모두 유실되어 남아있지 않다. 불모 일섭스님을 비롯, 영성스님, 신상군, 안병문, 홍국 안중거사 등이 보응스님의 걸출한 제자들이다.

금용 일섭(1900~1975)스님은 금호, 보응으로 이어지는 마곡사 계통 호서(湖西) 불화의 맥과 선암사 태운, 송광사 외경 등으로 이어지는 호남 불화의 맥을 한몸에 이어 받은 화승이다. 이 스님의 제자 중에 우일스님과 석정스님이 있는데 우일스님(1908~1998)은 70년 동안 불보살 조성에 매진해 오다 지난 98년 입적했으며, 석정스님은 92년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으로 지정되어 지금도 불화 맥 잇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석정스님은 열네살 때 일섭스님으로부터 정식으로 불화를 사사받기 시작했는데, 10대에 이미 전국 각지의 대소사찰 불사에 참가해 수많은 부처님을 모셨다. 석정스님은 전통적 색채인 적채를 재현한 '송광사 대웅전 후불탱화' 등 수많은 불화와 선화 작품을 선보였다. 현재 사단법인 성보문화재연구원 총재로 최근 법하스님(통도사성보박물관장) 등과 함께 <한국의 불화>시리즈를 완간하는 대불사를 회향했다.

이은자·권형진 기자(ejlee@buddhapia.com)

남방화소로 이름난 마곡사 화승들



○금호스님이 조성한 마곡사 은적암 신중탱.



○우일스님이 조성한 감사 신중암 후불탱.



정세채와 떠나는

선·식·기·행

느릅수제비

'죽음이 아니면 전성'이라는 금강과 같은 굳은 신념으로 용맹정진을 했던 구산 스님. 스님은 보살 수행을 할 때 생팔과 술안 그리고 콩가루를 주식으로 하루 한끼만을 드셨다고 한다. 이런 섭생으로 인해 스님은 해가 바뀌는지도 모를 정도로 수행에 전념할 수 있었다. 함양 안

외의 한 선비가 구산 스님이 수행하는 토굴에 들렀다가 스님의 치열한 수행 모습에 매료돼 3년 동안이나 스님 곁에서 아침저녁으로 맑은 물을 떠다 드리며 시봉했다고 한다. 구산 스님은 '시방제웅 팔면 영응(十方濟應 八面玲瓏)'이란 계침을 얻고 토굴에서 나왔다.

부종·암중에 효능...퀘양에도 좋아

그리고 그 동안 수행 뒷바라지를 한 선비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그러자 선비는 환양 안외에 오실 일이 생기면 자기 집에 들러 돌아간 선진을 위한 찬도 설법을 해 주시기를 정중히 청했다.

훗날 선비의 집을 잠깐 들렀는데, 그날이 마침 그 선비의 아버지 묘를 이장하는 날이었다. 구산 스님이 지성으로 염불을 하니,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다. 고인의 꿈에는 암종이 넓게 퍼져 있었는데 묘지를 파고든

나무뿌리가 암덩이를 쫓고 지나간 게 아닌가! 다른 부위는 아직 썩지 않았지만, 종양은 나무뿌리로 인해 녹고 있었다. 바로 그 뿌리가 스님나무뿌리였다. 선비도 위암 초기 증세를 보여 속이 불편했는데, 구산 스님의 권유로 그 뿌리를 먹고 90세가 넘은 현재도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다. 물론 구산 스님도 그때부터 늘나무 뿌리를 술안과 함께 늘 생식하게 되었다.

■ 약선식 연구가 <신시에 가면 특별한 식단이 있다> 저자

만드는 법(1~2인분)

재료 느릅(유근피)가루 10g, 생숙(숙가루) 10g, 통밀가루 1컵, 미역, 다시마, 표고버섯, 감자, 간장 1.미역, 다시마, 표고버섯을 물에 불린다. 2.밀가루를 반으로 갈라 각기 느릅가루와 숙가루를 섞어 소금간을 해서 반죽, 먹기 좋은 크기로 떼어낸다. (이때 유근피 가루는 밀가루의 15%~30% 정도 섞어야 약효가 있다.) 3.①의 물에 감자, 표고버섯, 미역, 다시마를 넣고 수제비 국물을 충분히 우려낸다. 4.준비한 수제비 반죽을 굽는 국물에 조금씩 넣은 다음, 간장으로 간을 해서 담는다. **효능** · 뿌리의 껍질을 유근피라하며, 각종 종창과 소화기 계통에 좋다. 밀가루 음식을 기피하는 사람에게 권하고 싶은 음식이다. · 각종 부종과 암중에 효능이 있으며, 각종 퀘양에 특효다.